

2. 선사인(先史人)의 집단 마을 한천(漢川) 유역³⁾

- ◎ ‘한내’는 제주문화(濟州文化) 발상지(發祥地)
- ◎ 사적기념물(史蹟記念物)로 보호되어야
- ◎ 4천년 전(前)부터 집단(集團) 마을 형성(形成)돼
- ◎ 많은 애환(哀歡) 지닌 도내(道內)서 가장 큰 내
- ◎ 돌 배[船]의 전설(傳說), 고인돌 1백2기 잔재(殘在)

제주섬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그들은 어디에서 얼마나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을까.

제주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 짚은 생각해 본 궁금증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에는 애월읍(涯月邑) 어음리(於音里)에서 발견된 동굴 유적으로 보아 구석기(舊石器) 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섬이 되기 이전의 일이며 게다가 화산(火山) 활동도 완전히 멎기 이전의 일이다. 제주도가 섬이 된 것은 후빙기(後氷期)[제4기 충적

3) 『한라일보』 창간호 (1989. 04. 22).



| 제주시 용담 2동 월성부락에서 발견된 웅관묘 발굴 현장 | 아래는 발굴된 웅관.

세(沖積世)] 이후의 일로 그것은 약 1만년을 전후한 때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수만 년 전의 구석기인을 그대로 제주인의 조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주인(濟州人)의 조상

오늘을 살고 있는 제주인의 조상은 아무래도 섬이 된 뒤에 들어온 사람들로 보아야 할 것 같고, 도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석기(新石器) 시대부터 청동기(靑銅器) 시대에 걸친 유적과 유물을 남긴 선사인(先史人)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그 연대 추정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래 보는 것은 5~6천 년 전까지, 낮춰 보는 것은 2~3천 년 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청규(李清圭) 교수는 제주도의 신석기 문화를 BC2000~1000년경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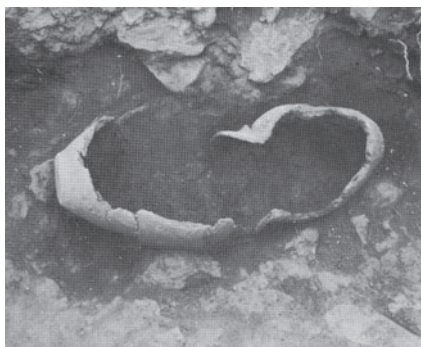
이때의 선사인들은 주로 어디에서 살았을까.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층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대체로 제주시의 한내[漢川] 유역에 가장 큰 집단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비교적 제주시에 근접해 있는 지역 즉 삼양(三陽), 조천(朝天), 함덕(咸德), 북촌(北村)과 외도(外都), 하귀(下貴), 광령(光令), 금덕(今德) 등에 소수집단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소수의 선사인들이 도내 곳곳에 흩어져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유적층(遺蹟層) 발견

이들 유적층을 가장 일찍 발견한 사람은 역사학자 최남선(崔南善)이었



↑ 유적 전체 노출 광경 (동에서) ↑ 1989년 제주대 박물관에서 펴낸 『용담동 고분』 91쪽(20번 사진).



↑ 북쪽 묘역 1호 독무덤 노출 상태2(북에서) ↑ 1989년 제주대박물관에서 펴낸 『용담동 고분』 108쪽(54번 사진).

다. 그는 1932년에 제주도를 답사하고 제주시 용담동(龍潭洞) 한천 변에서 일렬로 배열돼 있는 고인돌군 9기를 발견했다.

1959년 7월에는 제주도종합 학술조사단에 참여하였던 김철준 등 역사·고고반(歷史·考古班) 팀에 의하여 같은 지역인 한천 변 일대에서 고인돌 15기를 발견하고 학계에 보고했다.

그 뒤로도 홍정표(洪貞杓), 송석범(宋錫範)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더욱 많은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필자가 현장을 답사하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제대사대부고(濟大師大附高)가 있는 용담3동에서부터 방선문(訪仙門)이 있는 근처까지 한내 유역으로 길쭉이 고인돌군이 형성되었는데 모두 1백 2기가 있었다고 한다.

총연장 13km의 한내는 한라산 정상 북벽으로부터 기원(起源)하여 Y계곡, 어리목, 열안지(列雁地)를 거쳐 제주시 한 복판을 흐르는 내로 많

은 애환을 안은 도내에서는 가장 큰 내라고 할 수 있다.

이기형(李琪亨)씨에 따르면 이 고인돌에 관해서는 희한한 전설이 있다고 한다.

옛날 중국에서는 제주도에서 힘센 장수가 태어나 중원(中原) 대륙을 휩쓸게 되리라는 풍설이 나돌았다. 그리하여 장수를 보내어 제주의혈을 끊고 여러모로 제주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나무로 배를 만들면 중국을 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서인지 제주도에서는 오직 돌로만 배를 만들게 하였다. 화가 치민 제주 사람들은 이제 돌로 배를 만들었으니 중국에서 돛을 만들고 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중국을 난처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때 만든 돌배가 지금 도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고인돌이라는 이야기다.

이 한천 유역에는 고인돌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선사문화층이 발견되었다. 지난 1984년 주택공사 중 발견된 오라3동 월성(月城) 부락의 웅관묘층(甕棺墓層)을 비롯하여 석곽묘(石槨墓), 적석층(積石層) 석기(石器)

Ⅰ 웅담동 선사 무덤 유적(제주시 웅담2동) Ⅰ 1984년 발굴되어 1990년 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됨. 시기가 다른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남쪽묘역은 석곽묘(BC2~BC1) 북쪽묘역은 웅관묘(기원후 1~3C)가 출토됨.



와 토기층(土器層) 등 신석기시대로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량의 유적층과 유물이 수집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용담2동 ‘새정드르’에서 오라3동 ‘먹돌생이’에 이르는 한내 유역은 가장 집중된 문화유적층이었다고 하겠다.

주택단지로 둔갑

이 일대는 마땅히 사적기념물(史蹟記念物)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되었어야 할 곳이었다. 그것이 무시되고 4·3 사건 이재민에서부터 최근의 비행장 소음지역 철거민들까지 입주시켜 주택단지로 둔갑해 버렸다.

이번에 필자가 답사해보니 고인들이 있는 곳마다 거의 주택 담장이 바짝 둘러싸여 찾기조차 힘들었으며 선사유적층이 이미 개인집 안마당에 들어가 버린 곳도 있었다.

한천 유역 이 일대는 제주인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선사인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선사인촌(先史人村)이었고 제주문화(濟州文化)가 가장 일찍 일어난 문화의 남상지(濫觴地)였다. 수천 년의 시대가 흐른 지금 누가 주택지로 변해버린 이곳을 제주문화의 발상지로 인식하고 눈여겨볼까 생각해 본다.